

The Magazine for TOP Business Leaders

CEO & G



Cover Story

향후 40년 한국 기업의 가치창출에 매진할 것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주) 사장

CEO& Special Womanomics

월간(CEO&) 주최, CEO& 비자트 요트
금빛물살 가르며, 낭만의 바다를 누비다

현대자동차 · The brilliant motor festival
도심 속 새로운 자동차 문화 축제

Precious Watch
엄격한 장인의 명품 시계, 로저 드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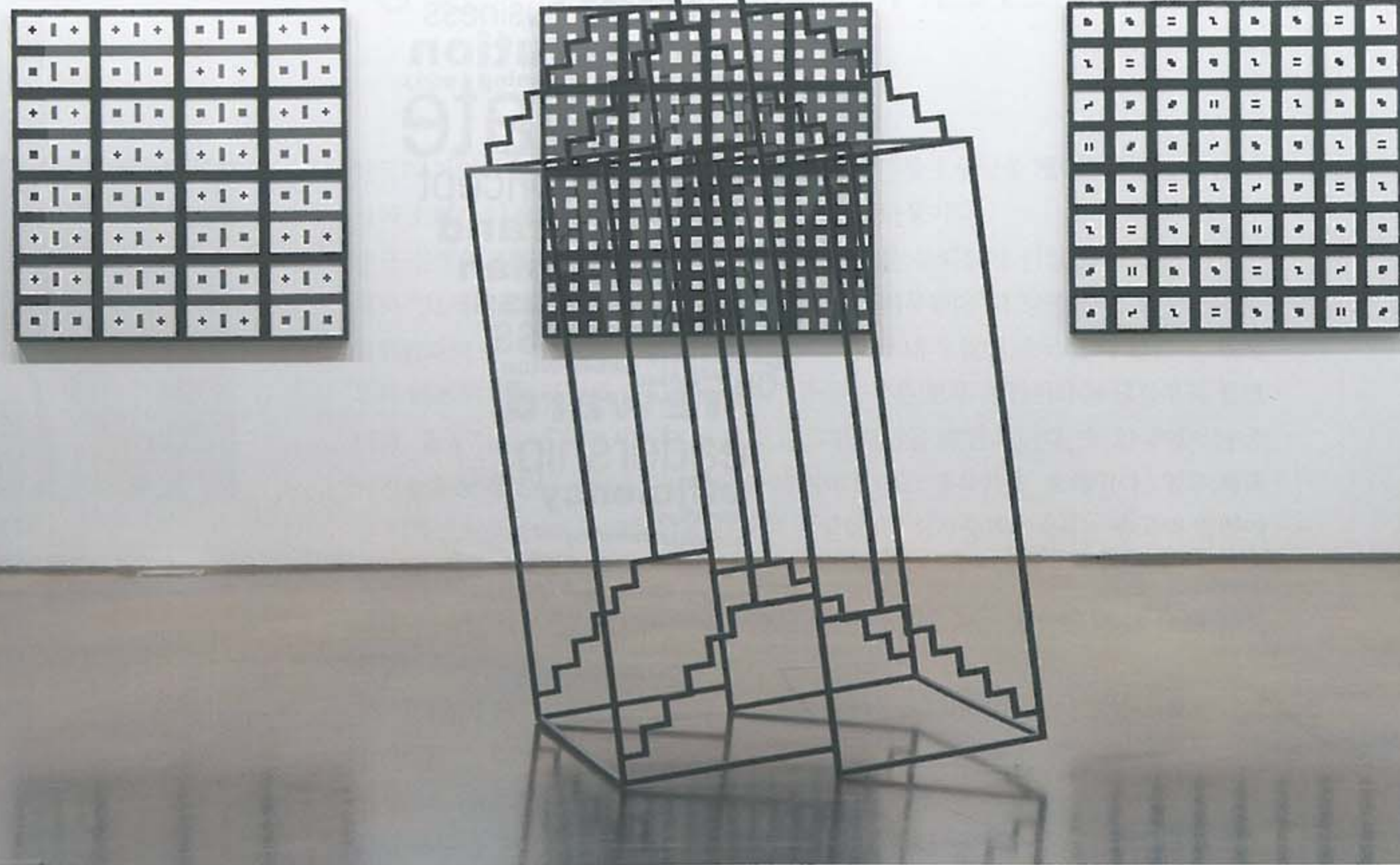
AUGUST 2014

가격 12,000원



CEO PARTNERS


www.ceopartners.co.kr 본지는 대한항공 국내외 VIP라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기적 기하학'의 작가 홍승혜 개인전 회상회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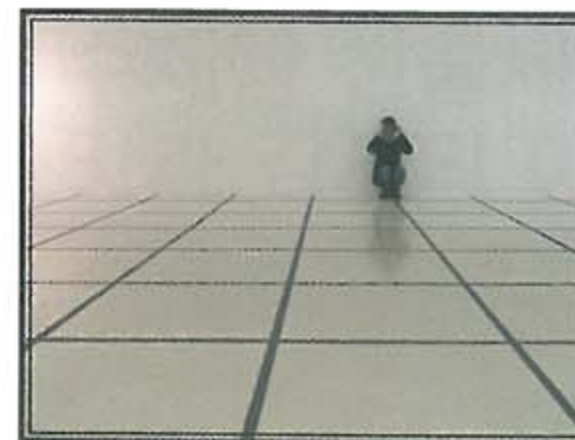
Editor 정달은 Cooperation 국제갤러리(www.kukjegallery.com)

중견작가 홍승혜가 자신의 과거 대표작들을 토대로 크기와 재료를 달리한 신작들을 개인전 '회상(回想)'에서 선보이고 있다. 과거 행적을 돌이켜보는 전시다. 일종의 회고전이다. 1997년부터 '유기적 기하학(Organic Geometry)'을 주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인 픽셀을 이용한 작업을 계속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레이어와 그리드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프레임의 변주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돌이켰다'.

2차원의 픽셀을 3차원의 기하학적 도형으로 재현한 작품을 통해 유기적인 것, 살아있는 것은 모두 변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작품에 대한 메타포로써 전시 공간은 모두 흑백으로 채워졌다. 작가는 "돌이켜 보면, 나는 늘 돌이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과거는 주어졌고 미래는 한없이 불확실하다. 결국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이야기"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추측보다 과거를 돌이켜봄으로써 현재의 나를 살펴보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8월 17일까지. 



◁ '회상'전에 설치된 픽셀 작품들_사진 김상태
▷ 홍승혜 '회상'전 설치 전경_사진 김상태
▽ '회상'전에 설치된 작품들_사진 김상태



홍승혜는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로 건너가, 1986년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2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1997년 토탈 미술상, 2007년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